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권 인 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취업 주부들에게 있어서 어린 자녀의 육아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핵가족 형태가 보편화 되는데다 여성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육아 문제는 각 가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결되어야 할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육아 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양 및 육아는 가족이 일차적인 책임을 수행해 온 한국 사회의 전통을 고려할 때, 취업 주부의 어린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는 가능한 가족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조부모는 자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자녀들과의 화목한 가족관계의 유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윤, 1985, 조, 정과 유, 1998) 흔히 손자녀 육아를 가까이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직업으로부터 은퇴를 하고, 가정 경제 주도권 이양, 자녀 양육이란 부모 역할 상실과 같은 가정내 역할 변화(윤, 1985)로 사회적, 가정적으로 공식적인 역할이 없는 중년기 후반의 여성에게는 손자녀를 돌보는 일은 소일거리가 될뿐만 아니라 역할 참여 기회가 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Adelman (1994)은 육아를 포함하여 노년기에 갖는 다양한 역할

참여는 심리적 안녕과 생활 만족을 증진시키고, 우울 증상을 저하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린 아동의 돌보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조부모가 되는 연령이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연령이기 때문에 체력이 저하되는데다 과중한 육아 활동으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이 시기에는 가사와 육아에서 벗어나 친구나 친척 관계에서 사교적 활동을 추구하는 시기로서 손자녀 육아로 인한 활동 제한은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거기에서 신세대 자녀와 육아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가족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부모의 손자녀 육아는 조부모에게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부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Dowdell과 Sherwen, 1998). Minkler, Roe와 Price(1992)는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의 70%가 현재 이 역할이 가치있는 일로 느끼지만 기분이 저하되고 지치고 계속하기 어려운 느낌이 동시에 든다고 하였다. 미국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경험하는 물질적, 법적, 심리 사회적, 신체적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Dowell, 1995, Dowdell과 Sherwen, 1998, Kelley, 1993, Kelley, Yorker와 Whitley, 1997, Musil, 1998).

육아에서의 증가된 스트레스는 적절한 돌보기와 가족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Crnic과 Greenberg, 1990),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소 연구원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손자녀를 돌보는 행위가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손자녀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나아가 가족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 관리자로서 간호사는 여성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최적의 가족 기능과 아동의 성장 발달 증진 차원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 사회적 부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조부모와 관련된 연구는 미국의 경우 부모의 약물 남용과 관련된 자녀 학대, 부모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부모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1990년 초기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Fuller-Thomson, Minkler와 Driver, 1997). 손자녀와 조부모의 관계(Sticker와 Flecken, 1986), 조부모의 돌봄이 손자녀에게 미치는 영향(Solomon과 Marx, 1995, Tolmin과 Passman, 1989), 조부모에게 미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Burton, 1992, Dowdell, 1995, Dowdell과 Sherwen, 1998, Kelley, 1993, Kelley, Yorker와 Whitley, 1997, Minkler, Roe와 Price, 1992), 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정책과 지지 자원(Minkler, Driver, Roe와 Bedeian, 1993) 등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돕는 차원에서 딸이나 며느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들과 동거하면서 혹은 자신의 집에서 손자녀와만 동거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조부모가 흔히 있을 것이라 추측되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간호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나 가족 관련 학문 영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까지 부담감은 노부모를 봉양하는 성인자녀의 문제나 혹은 환자를 돌보는 가족구성원이 경험하는 문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Dowdell과 Sherwen(1998)은 이 개념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로 확대시켜 부담의 내용이 무엇이며, 관련 요인과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친지 및 이웃 등과, 공적인 조직을 통한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도움을 일컫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안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 줌으로써 부담감을 줄이고 안녕감을 높이는 기능이 있다(George와 Gwyther, 1986).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가족 기능, 부담감, 스트레스 등의 개념과의 관계 연구가 실시되었고, 그 결

과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조, 1995).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경험하는 부담감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가운데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조부모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사회적 지지 개념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경험하는 부담감과도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간호중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고, 또한 이들 두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 정도는 어떠한가?
- 2) 손자녀를 돌보는 부담감과 관련이 있는 변인은 무엇인가?
- 3)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받는 사회적 지지 정도는 어떠한가?
- 4)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정도는 관계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조부모

손자녀를 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본 연구에서는 36개월 이하의 친손자녀 혹은 외손자녀를 자신의 집 혹은 자녀의 집에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는 할머니를 의미한다.

2) 부담감

주부양자가 부양의 결과로서 재정, 건강, 사회적 활동, 정서적 안녕, 대인관계 등의 전체 생활 영역에서 겪게되는 어려움이나 불편감(권, 1997)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결과로서 건강, 사회적 활동, 정서적 안녕, 대인관계 등의 생활 영역에서 겪게되는 어려움이나 불편감을 부담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사회적 지지

개인간의 상호작용으로서 타인에 의한 애정, 타인의 행위나 표현에 대한 인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상징적이거나 물질적인 도움 등의 지지적인 작용(Kahn, 1979)으로,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지각하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애정적, 긍정적, 물질적 지지 정도를 사회적 지지 척도로 측정할 점수를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II. 문헌 고찰

부담이란 “어떤 일을 맡아서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이, 1990)으로서, 부담감의 일반적인 개념은 “고통스럽고 짐스러운 느낌”(양, 1977)의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부담감에 관한 연구의 체계적 정립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Zarit와 Bach-Peterson(1980)이 노인성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경험하는 부담감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서 “부담감이란 노인성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가족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고통의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까지 부담감과 관련된 연구는 이러한 의료적 맥락에서 환자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이 경험하는 부담감의 내용이나 정도 및 관련 요인, 완화를 위한 중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연구 예를 보면 정신질환자 가족(임, 1991, 최, 1997), 재가 만성질환자 가족(서와 오, 1993), 노인 환자 가족(신, 1994, 신, 1995, 이, 1989), 치매 노인 가족(권, 1997, 이, 1997), 뇌졸중 환자 가족(김과 장, 1998, 박, 유와 송, 1999, 이와 송, 1996, 홍 등, 2000), 소아암 환자 어머니(백, 1995, 서, 1993, 이, 1996), 장애아 어머니(우, 1998)를 대상으로 가족 간호자가 지각하는 부담감의 내용과 정도를 기술하거나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다.

이상과 같이 간호학 문헌에서 다양한 간호 상황에 있는 간호제공자의 부담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온 데 비해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은 관심을 적게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Dowdell, 1995, Kelley, 1993).

미국의 경우 몇 편의 연구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Kelley(1993)는 40세에서 78세사이의 연령으로 손자녀 양육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조부모 41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 스트레스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스트레스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 집단 점수와 비교할 때 측정 도구의 9개 하위 영역 중 6개 영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44%는 임상적 범위로 고려되는 90백분위수 이상의 점수라고 하였다. 부모역할 스트레스 또한 표준집단과 비교할 때 사회적 고립감과 역할 제한, 배우자와의 관계 영역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였다. Dressel과 Barnhill(1994)은 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8명의 할머니와 21명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질적인 자료를 얻은 결과 할머니들은 광범위한 물질적, 법적, 심리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 사회적 요구는 돌보기 책임으로부터의 휴식, 자신의 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도움, 손자녀의 나쁜 행동에 대한 걱정 등이었다고 하였다. 자녀와의 갈등은 손자녀 육아의 원인이 되는 자녀의 문제에도 원인이 있으나 돌보기 역할에서도 갈등을 경험한다(Kelley와 Damato, 1995). 즉 자녀는 손자녀를 가끔씩 돌보면서 전통적으로 조부모가 갖는 즐거움을 가지나 자신은 손자녀를 전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부모-자녀사이에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신체적 건강문제는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154명의 할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Dowdell(1995)의 연구에서 45%의 할머니가 신체적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Minkler 등(1993) 또한 손자녀 육아 책임을 전적으로 맡게된 이후부터 37%의 할머니가 건강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Dowdell과 Sherwen(1998)은 연구자들이 실시한 사례연구와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조부모와 관련되는 문제(issue)와 이 영역에서의 간호역할을 제시하였다. 자녀 양육에서 은퇴한 다음에 다시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부가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흔히 손자녀를 위한 책임을 진심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할머니와 손자녀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서, 양자의 건강상태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할머니의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건강관리 제

공자는 할머니를 위한 건강 혹은 질병 관련 중재를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영역에서의 간호 역할에 대해서는 간호사는 조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들을 돕기 위하여 건강 요구를 사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부모의 건강 요구는 조기에 사정하고 중재 계획을 세워야 하며, 앞으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손자녀의 행동 문제와 보다 긍정적으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의 대처 전략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Ahmann과 Shepherd-Vernon(1997)은 조부모가 손자녀 육아 역할에서 당면하는 문제는 정서적 영향, 자녀에 대한 분노, 화를 다루는 방법, 자신의 삶을 되찾는 방법, 자신을 돌보는 문제, 재정적인 문제 등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손자녀 육아에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조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부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조부모의 경우에도 모호한 역할 때문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Jendrek, 1994). Musil(1998)은 부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조부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자가 사정에 의한 신체적 건강, 우울과 불안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건강, 부모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와 할머니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주관적, 도구적 사회적 지지를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조부모의 것과 비교하였다. 대상자는 다양한 장소에서 모집한 90명의 할머니로 부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할머니는 32(35.2%)명이었으며,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서 건강과 할머니 역할 스트레스, 대처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할머니보다 더 낮았고,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어려움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Kelley(1993)는 돌보는 손자녀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 부모 역할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고 하고, 회귀분석 결과 심리적 스트레스의 예측 요인으로 사회적 고립감과 역할 제한이 4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Dowdell(1995)은 16세 이하 손자녀를 6개월 이상 전적인 책임하에 돌보고 있는 평균 54.8세인 154명의 할머니를 대상으로 부담감 및 신체적 건강상태에 관련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무배우자 할머니가 유배우자보다 건강상태를 더 나쁘게 지각하며, 돌보는 손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손자녀의 건강상태가 나쁠 수록 할머니의 스케줄과 스트레스 수준,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개인간의 상호작용으로서 타인에 의한 애정, 타인의 행위나 표현에 대한 인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상징적이거나 물질적인 도움 등의 지지적인 작용(Kahn, 1979)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건강, 그리고 스트레스에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스트레스 발생을 예방 혹은 경감시킴으로써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완충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일관성있게 보고되고 있다(House, 1981). 특히 최근까지 환자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이 경험하는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족의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 기능이 있음을 지지하였으며(김, 1995, 노, 1997, 문, 1995, 박, 1991, 서와 오, 1993, 이, 1996, 최, 1997).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중재 방법(정, 1993)이 모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시에 소재하는 아파트 단지 중 세대수가 가장 많은 5개 아파트 단지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유아기 손자녀를 현재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는 조부모 중 편의표집 방법에 의해 선정된 할머니 102명으로서,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이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지와 부담감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이다.

1) 부담감 척도

부담감 척도는 권(1997)이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담 부담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의 도구는 6개 차원, 총 28개 문항이었으나 심리적 부담과 재정 및 경제 활동상의 부담 차원은 문항 내용이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고, 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 사회적 활동 제한,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건강상의 부담 등 4개 차원, 총 15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주로 중년 후반기 이후의 여성이며, 돌보기 대상이 3개월 이하의 손자녀임을 고려하여 용어를 적절하게 바꾸었다. 3명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이해 정도와 측정상의 어려움을 사전 조사하였으나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질문지는 5점 총화평정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부담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원래 도구에서 STD alpha가 .90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는 Norbeck(1981)이 개발하고 오(1984)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1개 문항으로 총 기능적 지지, 총 지지망, 총 상실의 3가지 변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총 기능적 지지는 6문항으로 애정적 지지, 긍정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총 지지는 지지망 수와 관계 지속 기간, 접촉 빈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기능적 지지와 총 지지망의 지지망 수만을 측정하였다. 대상자에게 삶에 중요한 사람을 나열하도록 하고 나열된 지지원에 대해 기능적 지지 정도를 5점 평정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자료 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1998년 12월 10일부터 1999년 3월 20일 까지였다.

자료 수집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마친 3명의 연구보조원이 대상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 질문지를 직접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 보조원이 질문지를 읽어 주고 응답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바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손자녀 돌보기에 대한 부담감 정도는 평균 평점과 표준 오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검정하였고, 손자녀 돌보기에 대한 부담감 정도와 사회적 지지 정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55-59세'가 31명(30.4%)으로 가장 많았고, '54세 이하'가 29명(28.4%), '60-64세'가 24명(23.5%)이었다. 배우자 유무는 '동거하는 경우'가 71명(69.6%)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현재 건강상태는 '보통'이 58명(5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량' 23명(22.5%), '양호' 21명(20.6%) 순이었다. 손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손자녀와만 동거'가 37명(36.3%), '손자녀와 동거하지 않음'이 34명(33.3%), '손자녀 및 그 가족과 동거'는 31명(30.4%)이었다. 돌보기 형태는 '항상'이 52명(51.0%)으로 가장 많았고, '평일 낮에만'이 31명(30.4%), '평일 낮과 밤'이 18명(17.6%)이었다. 딸이나 며느리의 취업 여부는 '취업'이 73명(71.6%)이었다. 손자녀 돌보기 자신감은 '있다'가 72명(70.6%)이었고, 수고비는 '받음'이 55명(53.9%)이었다. 손자녀 부모와의 돌보기 방법 차이는 '있다'가 71명(69.6%)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손자녀 돌보기에 대한 동기는 '자녀의 부탁'이 60명(58.3%)이었고, '본인의 의사'는 33명(32.4%)이었다<표 1>.

2. 손자녀 돌보기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감

손자녀 돌보기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감 전체 문항의 평균 평점은 최고 5점 중 2.96점으로 나타났다<표 2>.

부담감 문항의 순위를 보면, '자신을 위한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가 4.19점으로 가장 높았고, '피로하다'가 3.92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가 3.75점, '친구나 이웃과 접촉할 기회가 적다'가 3.62점 순으로 높은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수=102명)

특 성	구 분	실수	백분율(%)
연 령	54세 이하	29	28.4
	55 - 59세	31	30.4
	60 - 64세	24	23.5
	65세 이상	18	17.6
배우자유무	동거	71	69.6
	사별	30	29.4
	기타	1	1.0
현재건강 상태	양호	21	20.6
	보통	58	56.9
	불량	23	22.5
손자녀와 동거여부	손자녀 및 그 가족	31	30.4
	손자녀와만	37	36.3
	동거하지 않음	34	33.3
돌보기형태	평일 낮에만	31	30.4
	평일 낮과 밤	18	17.6
	주말만	1	1.0
	항상	52	51.0
딸이나 며느리의 취업여부	취업	73	71.6
	미취업	21	20.6
	기타	8	7.8
돌보기 자신감	유	72	70.6
	무	30	29.4
수고비	받음	55	53.9
	안받음	37	36.3
	기타	10	9.8
자녀와의 돌보기 방법차이	유	71	69.6
	무	31	30.4
돌보기 동기	본인의 의사	33	32.4
	자녀의 부탁	60	58.8
	본인의 의사 및 자녀의 부탁	3	2.9
	기타	6	5.9
계		102	100.0

점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3점 이상을 나타낸 문항은 ‘손자녀 돌보기에서 벗어나고 싶다’(3.49),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된다’(3.34), ‘수면이 부족하다’(3.33), ‘다음에 다시 손자녀를 돌보게 될까봐 불안하다’(3.22) 등이었다. 점수가 낮은 문항으로는 ‘가족이 도와주지 않는다’가 2.26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2.33점, ‘가족에게 화가 난다’ 2.43점 순이었다.

<표 2> 손자녀 돌보기에 대한 부담감 문항의 순위 및 평균 평점 (실수=102명)

순위	문 항	평균 평점 (표준오차)
1	자신을 위한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	4.19(0.08)
2	피로하다	3.92(0.07)
3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3.75(0.10)
4	친구나 이웃과 접촉할 기회가 적다	3.62(0.09)
5	손자녀 돌보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3.49(0.12)
6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된다	3.34(0.12)
7	수면이 부족하다	3.33(0.11)
8	다음에 다시 손자녀를 돌보게 될까봐 불안하다	3.22(0.13)
9	건강이 나빠진 것 같다	3.09(0.11)
10	집안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2.95(0.12)
11	손자녀를 돌보는 것과 관련된 가족 갈등이 있다	2.78(0.11)
12	손자녀를 돌볼 때 화가 난다	2.60(0.11)
13	가족에게 화가 난다	2.43(0.10)
14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2.33(0.09)
15	가족이 도와주지 않는다	2.26(0.08)
총 평균 평점		2.96(0.06)

3.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 차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현재 건강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양호한 경우보다 부담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F=7.97, P<.001), 돌보기 자신감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부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t=-3.40, P=<.01). 돌보기 동기가 본인의 의사인 경우에 부담감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6.03, P<.001), 조부모의 연령, 배우자 유무, 손자녀와의 동거여부, 자녀와의 돌보기 방법 차이 유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대상자의 총기능적 지지의 평균 평점은 3.83이었다.

각 지지원별 총기능적 지지 정도는 최고 5점에서, 며느리가 4.0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아들 3.97점, 딸 3.88점, 배우자 3.85점, 친척 3.61점 순이었다<표 4>.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총 지지원 수는 평균 3.59명이었다.

각 지지원에 대한 응답자 수와 비율은 표 5와 같다. 사회적 지지원이 아들인 경우가 83명(81.37%)으로 가

<표 3>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 차이

(실수=102명)

특 성	구 분	평균평점	표준오차	t 혹은 F
연 령	54세 이하	2.81	0.12	F=1.88
	55 - 59세	2.93	0.10	
	60 - 64세	2.97	0.11	
	65세 이상	3.22	0.13	
배우자유무	동거	2.90	0.07	F=1.26
	사별	3.09	0.10	
	기타	3.27	0.00	
현재건강 상태	양호	2.55	0.13	F=7.97***
	보통	3.01	0.07	
	불량	3.19	0.11	
손자녀와 동거여부	손자녀 및 그 가족	3.00	0.10	F=0.89
	손자녀와만	3.02	0.08	
	동거하지 않음	2.85	0.12	
돌보기 자신감	유	2.84	0.07	t=-3.40**
	무	3.25	0.09	
자녀와의 돌보기 방법 차이	유	2.95	0.07	t=0.25
	무	2.98	0.11	
돌보기 동기	본인의 의사	2.69	0.10	F=6.03***
	자녀의 부탁	3.02	0.07	
	본인의 의사 및	3.69	0.19	
	자녀의 부탁			
	기타	3.39	0.28	

*P<.05, **P<.01, ***P<.001

<표 4>사회적 지지원별 총기능적 지지 평균 평점

지지원	평균평점	표준오차
배우자	3.85	0.09
아들	3.97	0.06
딸	3.88	0.07
며느리	4.01	0.14
친구	3.58	0.08
친척	3.61	0.09
기타	4.22	0.46
총기능적지지	3.83	0.07

<표 5>사회적 지지원별 응답자 수 및 비율

지지원	응답자수	비율(%)
배우자	63	61.76
아들	83	81.37
딸	61	59.80
며느리	16	15.69
친구	31	30.39
친척	37	36.27
기타	3	2.90

장 많았고, 다음이 배우자 63명(61.76%), 딸 61명(59.80%), 친척 37명(36.27%), 친구 31명(30.39%) 순이었으며, 며느리가 16명(15.67%)으로 가장 적었다.

5. 손자녀 돌보기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돌보기에 대한 부담감과 사

<표 6> 손자녀 돌보기 부담감과 총기능적 지지와의 관계

	부담감
총기능적 지지	-.2833 (p<.001)

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amma = -.2833, p < .001$).

V.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대상자가 지각한 현재의 건강 상태는 77.5%가 보통 이상이라고 보고하여 미국에서 조사된 Dowdell(1995)의 55.5%, Musil(1998)의 66.6%와 비교할 때 높은 건강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자녀의 결함으로 인해 손자녀를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주로 며느리나 딸이 취업(71.6%)하므로써 자녀를 돕는 차원에서 손자녀 돌보기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돌보기로 인한 정확한 건강 상태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돌보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를 하거나, 참여전의 건강 상태와 비교를 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부담감 수준은 최고점 5점에 2.96점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부모로서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자녀의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돌보기를 받아들이는 운명론적 수용의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는 한 편,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세대에 의한 반응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한편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손을 돌본다는 보람과 애정 때문에 실제 부담을 덜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부담감 측정도구의 문체도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족 관계내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 내용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황의 부담감 척도를 이용한 데 따른 척도의 민감성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돌봄을 받는 손자녀, 그 가족 관계를 간호대상으로 보고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경험하는 부담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담감 척도 문항별 점수를 보면 전체 문항 중 사회적 격리감 혹은 역할 제한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자신의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가 4.19점으로 최고 점수를 보였고, '친구나 이웃과 접촉할 기회가 적다'가 3.62점으로 4위였다. 이 두 문항은 선행연구(Dowdell, 1995, Kelley, 1993)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대상자 연령이 과반수가 60세 미만으로 직접적인 육아나 가사일에서 물러나 친척이나 친구들과 친교활동이 많은 나이이기 때문

에 어린 아동의 육아로 인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 3위가 '피로하다'(3.92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3.75점)로서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나 신체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담감 점수가 낮은 문항은 가족관계에 관한 것으로 '가족이 도와주지 않는다'(2.26점),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2.33점), '가족에게 화가 난다'(2.43점), '손자녀를 돌볼 때 화가 난다'(2.60), '돌보기와 관련된 가족 갈등이 있다'(2.78점)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돌보기 방법에 있어서 70.6%가 자신있다고 하면서도 69.6%가 자녀와 돌보기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므로써 가족 갈등의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문항에서 가장 낮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가족 관계 유지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흥미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망에 있어서 지지원의 수는 평균 3.59명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지원은 자녀, 배우자와 같은 친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다양하거나 활발하지 않은 특성(조, 정과 유, 1998)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는 만성 질환자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났던 결과와 같이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을 완화시키는 완충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이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조부모나 손자녀 등과 관련되는 학문 영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가운데,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개념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로 확대해 본 데에 이론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확인하므로써 앞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조부모를 돕는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실무적 의의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경험하는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를 파악함으로써 조부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한 사회적 지지 개념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경험하는 부담감과도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간호 중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시

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일 중소도시에 거주하며 현재 36개월 이내의 손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는 할머니 102명이었다. 연구 도구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 척도를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에 맞게 수정한 15문항의 부담감 척도와 사회적 지지 척도를 이용하여 3명의 연구 보조원이 가정 방문하여 자가 기록케 한 다음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8년 12월 10일부터 1999년 3월 20일까지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은 60세 미만 58.8%, 이상 41.2%였으며, 69.6%가 유배우자였다. 현재 건강 상태는 77.5%가 보통 이상이었으며, 손자녀와 동거하면서 돌보는 경우가 66.7%였다. 딸이나 며느리가 취업한 경우가 대부분(71.6%)이었으며, 돌보기에는 70.6%가 자신감이 있다고 하였으나 69.6%가 자녀와 돌보기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수고비는 53.9%가 받고 있었으며, 돌보기 동기는 자녀의 부탁이 58.8%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경우는 32.4%였다.
2. 부담감은 최고 5점 척도에서 평균 2.96점이었다. 문항별로 보면, 높은 부담감 문항은 활동 제한과 피로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4.19점), '피로하다'(3.92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3.75점), '친구나 이웃과 접촉할 기회가 적다'(3.62점) 순이었다. 낮은 문항은 가족 관계에 관한 것으로 '가족이 도와주지 않는다'(2.26점),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2.33점), '가족에게 화가 난다'(2.43점), '손자녀를 돌볼 때 화가 난다'(2.60), '돌보기와 관련된 가족갈등이 있다'(2.78점) 순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부담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현재 건강 상태, 돌보기 자신감, 돌보기 동기였다.
4. 대상자가 지각한 총기능적 지지 점수는 평균 평점 3.83이었고, 지지원별 지지의 정도는 며느리(4.01점), 아들(3.97점), 딸(3.88점) 순이었다. 사회적 지지원의 수는 평균 3.59명이었으며, 지지원으로 아들에 응답한 대상자의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배우자(63명), 딸(61명) 순이었다.
5.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0.2833(p<.001)$

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조부모가 경험하는 부담감의 정도는 높지 않았고,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본 연구 대상자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관련 요인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1.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경험을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2. 조부모에 의한 욕구가 손자녀에게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파악하는 중단 연구를 제언한다.
3.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경험하는 부담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권중돈 (1997). 한국 치매가족 연구. 서울: 홍익재.
- 김현미, 장군자 (1998). 뇌졸중 환자가족이 인지한 부담감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 교육학회지, 4(1), 81-94.
- 문진하 (1995).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명희 (1991). 가족 간호제공자의 부담감 인지정도 및 영향변수 분석. 카톨릭의학부 논문집, 44(3), 949-958.
- 박연환, 유수정, 송미순 (1999). 뇌졸중환자를 돌보는 가족간호자의 부담감과 집단적 지지 간호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성인간호학회지, 11(1), 119-134.
- 백소희 (1995). 암환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서미혜, 오가실 (1993). 만성 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3), 467-486.
- 서중숙 (1993). 백혈병 어린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신혜경 (1995).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과 건강상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신혜선 (1994). 만성질환을 가진 재가 노인환자의 자기 간호능력과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주동 (1997). 국어대사전. 서울: 선일문화사.

- 오가실 (1984). 정신지체 아동을 둔 한국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가족 기능. 석사학위 논문. 미국 텍사스 여자 대학 대학원.
- 오가실 (1997). 사회적 지지 모음이 발달지연아 어머니의 부담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7(2) 389-400.
- 우미영 (1998). 장애아 어머니의 부담감 정도와 요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윤진 (1985). 성인, 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이강이, 송경애(1996). 뇌졸중 환자 가족이 인지한 부담감 및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6(4), 853-867.
- 이은정 (1996). 소아 암환아 어머니의 부담감, 사회적 지지와 가족 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인정 (1989). 병약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보호자의 부담에 관한 연구-일차적 보호자의 유형에 따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14, 163-197.
- 이혜영 (1997).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대학원.
- 이희승 (1990).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점.
- 임혜숙 (1991).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정추자 (1993). 사회적 지지모음이 뇌, 척수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무용 (1995). 노인환자의 무력감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복희, 정옥분, 유가호 (1998). 인간발달. 교문사.
- 최영신 (1995).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여신, 서문자, 김금순, 김인자, 조남옥, 최희정, 정성희, 김은만 (2000). 뇌졸중환자의 가족 간호자가 지각하는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0(3), 595-605.
- Adelmann, P. K. (1994). Multiple roles'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ervice, 49(6), 277-285.
- Ahmann, E., & Shepherd-Vernon, B. (1997). Kinship care: An emerging issue. Pediatric Nursing, 23(6), 598-600.
- Burton, L. M. (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The Gerontologist, 32(6), 744-751.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owdell, E. B. (1995). Caregiver burden : Grandmothers raising their high risk grandchildren.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33(3), 27-30.
- Dowdell, E. B. & Sherwen, L. (1998). Grandmothers who raise grand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May, 8-13.
- Dressel, P. L., & Barnhill, S. K. (1994). Reframing gerontological thought and practice : The case of grandmothers with daughters in prison. The Gerontologist, 34(5), 685-691.
- Fuller-Thomson, E., Minkler, M., & Driver, D. (1997). A profi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37(3), 406-411.
- George, L. K., & Gwyther, L. P. (1986). Caregiver well-being: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26(3), 253-259.
- House, J. S. (1981). Work stress & social support. California: A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Jendrek, M. P.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 Circumstances and decision. The Gerontologist, 34(2), 206-216.
- Kahn, R. L. (1979). Aging and social support. In M. W. Riley(ed.). Aging from birth to death :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pp. 79-91). Boulder co: Westview press for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7(1), 164-174.
- Kelley, S. J. (1993). Caregiver stress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4), 331-337.
- Kelley, S. J., & Damato, E. G. (1995). Grandparents as primary caregivers. MCN, 20, Novembe/December, 326-332.
- Kelley, S. J., Yorker, B. C., & Whitley, D. (1997). To grandmother's house we go...and stay. Children raised in intergenerational famil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3(9), 12-20.
- Minkler, M., Driver, D., Roe, K. M., & Bedeian, K. (1993). Community interventions to support grandparent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3(6), 807-811.
- Minkler, M., Roe, K. M., & Price, M. (1992). Th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crack cocaine epidemic. The Gerontologist, 32(6), 752-761.
- Musil, Card M. (1998). Health,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grandmother caregiver.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 441-455.
- Solomon, J. C., & Marx, J. (1995). "To grandmother's house we go": Health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The Gerontologist, 35(3), 386-394.
- Sticker, E. J., & Flecken, M. (1986). Journal of Gerontology, 19(5), 336-341.
- Thomas, J. L. (1986).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grandparenting. Journal of Gerontology, 41(3), 417-423.
- Thomas, J. L. (1990). The grandparent role: A double bind. INT'L J.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1(3), 169-177.
- Thomson, E. F., Minkler, M., & Driver, D. (1997). A profi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37(3), 406-411.
- Tomlin, A. M., & Passman, R. H. (1989). Grandmothers' responsibility in raising two-year olds facilitates their grandchildren's adaptive behavior : a preliminary intrafamilial investigation of mothers' and maternal grandmothers' effects. Psycho Aging, 4(1), 119-121.
- Zarit, Roever & Bach-Peterson (1980).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 correlation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20, 649-655.

- Abstract -

Key concept : Grandparent, Burden, Social sup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den and the social support of grandmothers caring their grandchildren

*Kwon, In Soo**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add to the developing knowledge base about the burden and social support of grandmothers involved with caring grandchildren, and to examine whether a significant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ir burden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the grandmothers.

A convenience sample of 102 grandmothers was recruited from five collective apartment areas at a small city in Korea. The criteria of selection of sample were that the grandmothers were raising their grandchildren under the age

*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of Gerontological Health Research Cent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f 36 months for 3 months or longer at own or grandchildren's home. The instruments used were a 15-item multidimensional burden scale and a 8-item social support scale. Both scales were self report, five point Likert type scales.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the degree of burden and social support. Data was collected by two prepared research assistants visiting subjects' home from December 10, 1998 to March 20, 199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using mean,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omputed by SPSS softwa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age distribution of grandmothers, the over half of subjects(58.8%) were under 60 years old. The majority(69.6%) of subjects were married at time of data collection. 79(77.5%) of the sample reported that their perceived health status was good or over.
2. The burden of the grandmothers was not scored high, and the item means on burden scale were ranged from 2.26 to 4.19 out of 5. 'Short of private time'(4.19) had the highest score, followed by 'fatigue'(3.92), 'short of rest'(3.75), and 'short of contact with friends and neighbors'(3.62). The lowest item was 'family doesn't help me'(2.26), and followed by 'family doesn't understand me'(2.33), 'angry with family'(2.43), and 'angry while caring for grandchild'(2.60).
3.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burden and present health status($p < .01$), childcaring confidence($p < .01$), and motive of caring($p < .01$).
4. The score of social support, was ranging from 3.61 to 4.01 out of 5.
5. The relationship between burden and social support was found to be correlated negatively. The relationshi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r = -.2833$, $p < .001$).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burden was not high and burden of grandmothers caring grandchildren was correlated negatively to social support. Therefore, these results provide a basis for developing a nursing intervention to reduce the burden of grandmothers.